

농업변화와 여성생산자의 주류화를 위한 복지체계 토론

김 이 선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

1. 농업변화와 여성의 양적·질적 노동부담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80% 가까이 되는 농가에서 부부가 함께 농업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의 연구에서도 대다수 여성들이 농가의 기간노동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농업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치는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유형별로는 수도작의 경우 다른 농업유형에 비해 부부공동노동의 비율이 약간 낮고 과수와 수도작복합의 경우 그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여성생산자와 관련해 지니는 함의를 충분히 밝히기 위해서는 농업유형의 변화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요작물별 재배면적 추이를 보면, 쌀 중심의 생산구조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맥류와 두류 등 쌀 이외의 식량작물은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재배면적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미국재배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수도작재배가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쌀 시장 개방과 함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서 쌀의 위치가 크게 위축된 데 반해, 시설채소나 과수 등 상업작물의 재배와 축산 등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인 반면, 시설채소나 과일 등은 그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¹⁾.

이러한 변화는 농가차원의 농업경영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재배면적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농한기와 농번기의 구분이 없어지고 오히려 시기구분이 전도되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력 구성면에서는 여성노동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대상에는 시설농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업추이와 관련된 여성 노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차선책으로, 농업인 연령대에 따라 농업경영방식이 차이가

1) 한두봉·김병률(1992),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날 수 있는 만큼,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대별로 농업노동관련 사항을 분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저의 짧은 연구 경험에 따르면, 농업생산이 주년화되고 시설이나 과수 등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농업부문이 확대되면서 여성들의 농업노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수도작의 경우 일반 기계화가 가능할 정도인 데 비해, 시설이나 과수 등에서는 기계화 수준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여성들의 노동부담은 극심하다는 판단이 든다. 더욱이, 여성들이 찌는듯이 더운 하우스 안에서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일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노동시간의 확대라는 양적인 부담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담까지 노동개념에 포함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상시적 이중부담

농업노동이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거의 모든 여성생산자들은 주부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농가주부들은 농업생산주기에 따라 가사노동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는 수도작전업농가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복합농가나 낙농가의 경우 시기별로 거의 차이가 없고, 과수농가의 경우에는 평상기와 농한기의 가사노동시간이 수도작농가와는 오히려 역전되는 양상도 보인다. 이와 같이 농가별로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농업유형에 따라 생산주기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낙농의 경우에는 농번기와 평상기, 농한기를 구분하기 힘들다. 이러한 경향은 시설농업의 확산으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농번기, 농한기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농가주부들은 일년내내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과수농가의 경우 농번기에는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하루 32분이라는 사실이다. 이 정도의 시간으로는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가사노동도 소화하지 못할 듯 싶다. 이제 농촌에서도 핵가족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를 대신해 가사를 돌볼 사람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시기의 농가생활은 미루어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성들은 자구책을 만들어 낸 . 이전에는 직접 준비하던 새참을 식당에 주문하기도 하고 아이들 도시락도 돈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예 시설 안에 가스레인지며 싱크대, 냉장고, 밥통까지 갖추어 놓고 밭에서 일하다가 바로 돌아서서 '집안일'을 하고 또 다시 밭일을 하고... 여기에 더해, 어린아이라도 있는 여성들의 생활이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가끔 TV에서 도시 중산층 주부들의 여유있고 우아한 삶을 보게 되면, 자신이 잠잘 시간도 줄여가며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보다는 "나는 왜 저들처럼 집안을 예쁘게 가꾸고 자기 치장도 하고 남편 뉘 바라지도 잘하고 아이들도 번듯하게 키우지 못하나"하는 자괴감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가사노동은 단순히 시간 투여의 문제일 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의 주요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3. 여성농업생산자의 주류화를 위한 복지체계

이와 같이 농업생산과 가사노동영역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농가수준에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데에는 조사대상지역의 특수성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즉 조사지역은 도농통합시로서 설문에 포함된 대다수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곳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사실상 아직도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문화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에서는 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는 유보해야 할 것이다.

가정생활부문에서는 가계관리상의 문제와 생활만족도, 앞으로의 계획 등이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항목을 보면 현재 여성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전제하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떠한 점이 어렵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극히 소극적인 차원의 복지개념에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할 것과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구분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복지는 단순히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의 차원을 넘어서 발전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어야 한다. 여성발전의 단계를 보면, 여성의 복지 향상에서 출발해 점차 생산수단 및 신용에 대한 접근권 보장 ➡ 성역할의식의 변화 ➡ 의사결정 및 정책과정 참여 ➡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평등한 통제권 확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²⁾.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단지 앞단계가 먼저이고 이것이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강조점의 차이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회 각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발전의 성과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발전정도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어서 여성발전의 부문간 지체라고까지 평가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여성 내지 여성농업인의 복지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여기에서 여성발전의 단계 전반을 염두에 두고 그 기반을 놓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바람직한 복지개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농업인들은 여성이자 농촌지역주민이면서 동시에 여성농업생산자이기도 하다. 여성으로서의 공통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으며 농촌주민으로서의 소외 문제는 농촌의 남성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여성농업인들은 농업의 추이와 농촌지역의 문화 속에서 여성생산자로서 특수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복지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농촌지역에 확대하고 농촌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체계를 고안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사업장을 기초로 하는 만큼, 농업부문종사자들의 복지수준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서 크게 떨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는 농업생산자복지

2) Longwe(1991), 'Gender Awareness: The Missing Element in the Third World Development Project', in Wallace, T. and March, C.(eds.1991)., Changing Perceptions: Writings on Gender and Development, Oxford: Oxfam.

개념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여성생산자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제공되는 복지혜택-건강과 재생산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나 지원제도, 최저 생계 수준 보장,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 등 - 이 농업 부문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복지는 단지 근로자 복지 차원을 넘어 교육, 환경,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도 지역간 차이가 뚜렷하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사회차원의 복지수준을 높임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가 특정한 시설-회관이나 도서관 등-의 부재에 있는 것인지, 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서비스가 미흡해서 생기는 문제인지를 밝히고 농촌지역에 알맞은 복지서비스체계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기존에 이미 도입된 제도나 시설 및 서비스를 농촌지역과 여성들에게 확대실시하는 것 이외에, 여성농업생산자의 특수한 복지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특히 생산자 지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복지차원의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성들의 진정한 요구는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농가, 지역사회, 전체 농업, 도시를 포함한 국가, 세계까지 아우르는 거시적인 여성발전과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여성농업인들의 과제를 진단하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추진될 때에 여성생산자들은 농업변화와 여성발전, 나아가 사회 전반의 조류에 통합된 주체로서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